알아두면 쓸모있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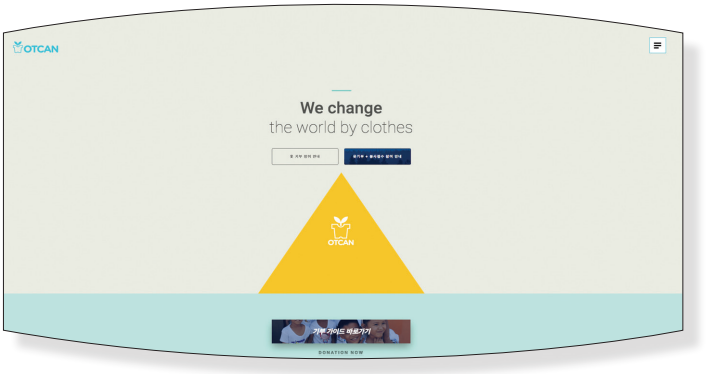
안 입는 옷 처리법

교복을 입으니 제법 어른스러워 보이는 우리 아이. 부쩍 커버린 아이의 초등 시절 옷을 정리하다 보니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줄줄 나온다. 이럴 때 망설이지 말고 정리하자. 유행이 지나 안 입는 옷들도 마찬가지. 간편하고 고전적인 헌옷 수거를 이용할 수 있지만, 조금만 품을 팔면 수익을 내거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많다. 처치 곤란 옷들을 기분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대표적인 사이트들과 함께 소개한다.

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@naeil.com
도움말 신정은 사원(옷캔 경영지원팀)
자료 옷캔·더 클로젯·shop4989

CASE 1

버리기 대신 나누기 – **의류 기부**



옷캔 otcan.org

옷캔은 헌옷을 기증받아 제3세계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이트다. '옷으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'는 취지로 설립됐으며, 환경부·외교부·기획재정부의 인증을 받은 신뢰도 높은 비영리단체다. 현재 국내 소외계층, 가정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. 자녀가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돼 있다면 최대 3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들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. 기부 한 번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. 옷캔의 신정은 씨는 "옷캔은 기부받은 의류의 순환을 통해 매년 120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심는 성과를 내고 있다. 안 입는 옷으로 환경을 지키고,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실천해보길 바란다"고 전한다.

이용 가이드

❶ 회원 가입

❷ **기부 물품 정리** 특수복(한복·무술복 등)을 제외한 모든 옷과 모자·가방·인형·담요 등을 기부할 수 있다. 심하게 오염되지 않은 이상 세탁하지 않아도 된다.

❸ **물품 상자 포장** 우체국 택배 상자 5호 이하, 무게는 15kg 이하로 권장한다. 박스당 1만 원을 처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. 이는 기부금으로 책정, 추후 영수증을 발급해준다.

❹ **신청서 작성과 발송** 옷캔에 기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, 상자를 발송한다.

✚ 봉사활동 인증받고 싶다면?

옷캔은 청소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봉사활동 인증제를 도입했다. 홈페이지의 '봉사활동 가이드'에 방법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. 상자의 무게가 8kg을 넘어야 하며, 기부 수량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봉사 시간이 다르다. 옷 분류나 포장 사진 등 인증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자!

CASE 2

버리지 말고 팔자 – **중고 위탁판매**

중고 위탁판매 전문 사이트 www.shop4989.com

큰맘 먹고 마련한 옷을 버리거나 남에게 주자니 아까운 마음이 든다. 적당한 가격에 팔고 싶지만, 직접 중고거래에 나서자니 귀찮은 마음이 크다. 이럴 때 중고 위탁판매를 이용해보자. 최근에 가장 입소문난 곳은 SHOP4989.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들을 묶음배송 해줘 편의성이 높으며 다른 곳보다 물건이 빨리 팔린다고 알려져 있다. 옷뿐만 아니라 철지난 장난감이나 책, 안 쓰는 주방·생활용품도 처리할 수 있다. 안 쓰는 물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,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활용해보길 추천한다.

이용 가이드

❶ 회원 가입
❷ **판매 물품 준비** 세탁은 필수, 계절 옷은 시기에 따라 받지 않기도 하니 주의하자.
❸ **물품 상자 발송** 배송비는 선불, 인당 한 달에 한 상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.
❹ **희망 판매가격 등록** 등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초 가격의 50%까지 할인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.
❺ **판매 후 정산받기** 판매가의 50%는 수수료다. 판매 다음달 5일 일괄 정산받는다.

✚ 엄마들의 재테크로 활용할 수도
중고 위탁판매는 판매는 물론이고 구매까지 가능하다. 위탁판매뿐만 아니라 사이트 내에 자신만의 미니숍을 만들어 재테크를 하는 경우도 있다. 개인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숍을 운영할 수 있어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.

CASE 3

제3의 처리법, 대여하기 – **공유 경제**

더 클로젯 www.theclozet.co.kr

'타인의 패션을 공유한다.' 가능한 일일까? 더 클로젯은 내가 입지 않는 옷과 가방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내가 필요한 물품도 대여할 수 있는 사이트다. 사춘기 변덕이 심한 우리 아이. 유행 따라 옷을 매번 구입하기보다는 빌리는 것도 방법일 터. 팔거나 버리기 아까운 옷들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. 수요가 많은 브랜드 옷과 가방을 등록할 수 있으며, 공유한 옷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대신 판매해주기도 한다.
특히 배송부터 세탁·수선까지 모두 처리해주므로 옷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신경 쓸 일이 없다는 점도 알뜰족 학부모들의 눈길을 끈다. @

이용 가이드

❶ 회원 가입
❷ **물품 공유 신청** 홈페이지는 물론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. 관련 양식에 맞춰 브랜드, 오염도, 사이즈 등의 정보를 작성해 제출한다.
❸ **물품 등록 확인** 최종 검수팀의 통과를 거치면 사이트에 물품이 등록된다.
❹ 월정액으로 등록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.

✚ 여기서 잠깐!
환경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의류 폐기물은 2008년 162톤, 2014년 214톤으로 6년 사이에 32.4%나 증가했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. 유행에 따라 발 빠르게 신제품을 내놓는 SPA 브랜드의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. 이러한 의류의 대부분은 석유가 주성분인 화학섬유로 되어 있다. 의류 재활용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행동임을 기억하자.